

# 한글

昭  
和  
十  
九  
年  
四  
月  
十  
一  
日  
第  
三  
種  
郵  
便  
物  
認  
許  
印  
刷  
日  
每  
月  
一  
日  
一  
四  
號

## 차 목

標準語 查定の 最終 決議(記事).....	羅 莞 爾	( 1 )
方言採集에 對하야.....	申 瑛 澈	( 6 )
閑是非.....	李 好 春	( 8 )
方言 (永川地方).....	李 相 寅	( 13 )
물음과  대답.....	李 浩 盛	( 15 )
『한글』을 읽고서.....	李 相 寅	( 16 )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語彙調査.....	李 浩 盛	( 17 )
崔鉉培氏의 『시골말』 考기 摘錄.....	한  메	( 21 )
하멜표류기(七).....		( 22 )
속담 (한글 바루잡아 쓰기 익힘).....		( 26 )
△附錄(方言採集表 一回).....		( 1-9 )

第四卷 第九號 (十月號)

叻七錢



延禧專門學校  
文科教授

崔鉉培 先生 著

# 시골말 캐기 잡책

(方言採集手帖)

定價 〇、三〇 送料 〇、〇二

## 言語의 연구와 整理上 重要性

시골말(方言)은 그 시골 先民들이 끼친 鄉土文化의 重要한 한 遺産이다. 이를 散佚과 湮滅에 放任함은 文化 繼承 및 擴充의 義務를 가진 後人의 道理가 아니며, 더구나 이를 混亂의 自然에 放置함은 社會文化의 發達을 圖謀하는 現代人의 羞恥가 아니면 안될 것이다. 이케 바야호로 朝鮮語文의 研究 및 整理의 運動이 高調되는데 이때에 各地方의 方言을 캐어모아서 整理하는것은 크게 意味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 책은 天文、地理、人倫、衣食住、動物、植物、人體及疾病、人事 年中行事、農村語彙、漁村語彙、山村語彙、其他에 亘하여 語彙와 音聲과 方法의 各方面에 關하여 시골 各處에 關하여 方案을 가장 理想的으로 마련한 것이니, 이 한편을 가지고 한 시골말을 캐어볼 것 같으면, 그 經驗은 족히 朝鮮의 語音、語彙 及 方法에 關한 正確한 識見을 얻을뿐 아니라, 言語文化에 對한 自己認識의 深化、自己愛護의 熱化로 말미암아, 朝鮮의 文化向上에 寄與함이 있게 될것을 믿는다. 十三道 各處에 있는 文化青年은 各各 이 책을 使用하여 自己 시골의 말을 캐어모아, 朝鮮語 整理의 歷史的 事業에 一臂의 力を 보태기를 아끼지 말라.

各種 男女 中等學校와 專門學校에서 이 시골말 캐기(方言採集)를 夏期休暇의 課題로 함은 歸郷 或은 旅行하는 學生에게 無上의 좋은 教育手段이 될 것이요, 或은 이를 課外教材로 使用 하더라도 우리의 言語뿐 아니라, 人倫、風習、生活에 對한 正確한 常識을 涵養하는 隨益이 있을 줄로 믿는다.

### 發行所

### 朝鮮

### 語學會

京城府花洞町一二九番地

振替口座 京城一〇〇四四番



# 조선어학회의 업적

## 표준어 사정 최종 결의

### ◇민족 공통어의 완성

○준비. 작년(을해) 팔월 소귀

봉황각(鳳凰閣)에서 사정 결의한 제

이독회의 표준어 원안을 그사이 수

정위원들이 수정을 마쳐어 표준어

사정안을 작성하고, 이것을 인쇄하

야, 병자 칠월 육일에 위원 권처

에게는 물론, 각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문필가 기타 명사 케씨등

사백 식은 아홉군데에 이 사정안을

보내어 비평과 의견을 들었다. 이

와 같이 여러군데에서 들어온 의견

을 종합하여 엄정히 심의하여 사

정안의 대정리를 행하였다. 이것을

고쳐 인쇄하여 이번 제 삼독회에

토의할 안건을 정하였다.

○출발. 이번 제삼독회의 회의

는 칠월 삼십일부러 등 삼십일일까

지 이틀동안 인천부 우각리(仁川

府 牛角里) 케일 공립 보통학교에서

하기로 정하고, 위원 케씨는 일케

이 용산역에 집합하여, 병자 칠월

삼십일 오전 구시 오분발 기차로

인천을 출발하였다.

○참석한 위원. 이번 삼독회에

참석한 위원은 모두 철흔 두사람

으로 그 이름은 아래와 같다.

金克培 金斗憲 金良洙 金允經

金熙祥 文世榮 朴允進 朴顯植

申允局 申仁植 徐恒錫 玉璿珍

尹福榮 李 鉀 李康來 李克魯

李基潤 李萬珪 李命七 李淑鍾

李裕應 李允宰 李重華 李熙昇

張志暎 張鉉植 鄭寅承 趙基栞

趙鑄薰 崔鉉培 韓 澄 咸大勳

이 밖에 전문어(專門語)에 관한

고문으로 李德鳳(博物語) 鄭文基(水

產物語) 宋錫夏(民俗學語) 세분이 참

석되고, 방청인이 아홉사람이었다.

○개회. 예정대로 병자 칠월 삼

십일 오전 십시 삼십분에 인천 제

일 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조선어

표준어 사정 제삼독회를 열다.

○임원 선정. 본회 간사장이

만규(李萬珪)씨가 개회를 선언하다.

이번대회에 의사진행을 위하여 임

원을 선정할새, 먼저 임시의장의 자

벽으로 김윤경(金允經) 조기간(趙基

栞) 이규로(李克魯) 서항석(徐恒錫)

비분을 전형위원으로 정하다. 전형

위원으로서 임원을 선정하여 회중

에 통과하니 곧 아래와 같다.

主席團 李萬珪 崔鉉培 李裕應

趙鑄薰



記錄員 鄭寅承 徐恒錫 金允經

文世榮

提案說明委員 李允宰 韓澄

### ○ 의사 진행의 개요. 의장

이만규씨와 기록원 정인승 씨항석  
두분이 착석한후 의사를 진행할새,  
제안실명위원 이윤재씨가 이번 수

아래와 같은 실명



6818062

회에 토의할 원안은  
우이동회의 (牛耳洞會  
의한것을 수청위원회

가 말아가지고 그사가 일년을 두  
고 거의 철회없이 수청하야 이  
원안을 작성한것이다. 이 원안 가  
운데 수용되어있는 말의 수효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語	群	語	彙
同意語	一九六七	四六三五		
各立語	四四八	一〇三四		
合計	二四一五	五六六九		

이것을 지난번 이독회때의 원안에  
있던 표준어의 어휘수에 비교하면  
삼백 십구개 어휘가 증가한것이니,  
이는 수청위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것을 보충한것이다. 그리  
고 이 동의어와 각립어 중으로서  
표준어로 화립된것이 모두 삼천 일  
개어이다. 이 정리된사청안을 인  
쇄하야 사회 각방면에 보내어 비  
평과 의견을 구하였으며, 또 이것  
을 종합하야 다시 원안 전체를 검  
토하야 꼭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을 일일이 찾아내어서  
이번에 토의할 의안으로 상청(上  
程)하게 된것이다.  
그리고 원안 전체에 대하여는 일  
독회와 이독회에서 이미 충분히 토  
의하야 결정하였으므로, 이제 또  
그것을 축조 토의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번 수청위원회에서 제출  
한 의안에 한하야 토의할것이라  
생각한다. 끝  
一、同意語에서 各立語로 넘길것.

- 二、各立語에서 同意語로 넘길것.
  - 三、標準語를 바꾼것.
  - 四、홀소리 『ㄱ』의 逆行同化問題.
  - 五、『ㄴ』와 『ㄷ』의 混同에 關한  
것.
  - 六、『ㄷ』과 『ㄷ』의 混同  
에 關한것.
  - 七、未決語彙 및 遺漏된것.
- 등이다. 이번 회의는 조선어 표준  
어사청위원회의로서는 최초의 회의  
가 될것인즉, 더욱 신중히 처리  
하야 할것이다.  
회의 시간은 오전 구시부터 동  
십시까지와 오후 일시부터 동 육  
시까지와 동 구시부터 동 십시까  
지 매일 세번씩 모이기로하며, 주  
석. 네분이 윤차로 사회하야 의사  
를 진행하였다.
- 기일 연기.** 본디 예정한 이  
틀 동안의 기일은 너무 부족하  
므로, 하루를 더 연기하여 팔월 일  
일까지 회의를 계속하기로 하다.
- 감사한 일.** 이번 대회의 비



용 권부를 부담하여 주신 경성 청  
원규(鄭完圭)씨와 집회할 장소를 빌  
려준 인천 제일 공립보통학교 교장  
과 대회에 대한 모든 준비와 주신  
을 하여 주신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  
선중앙일보 세신문 지국장에게 대  
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다.

○죽전과 추사. 표준어 사경에  
대하여 아태 여러분의 축전과 축  
사를 접수하다.

- 축전 경 성 이인근
- 축사 춘 천 신영철
- 동 사리원 박주양
- 동 항 주 송주성

○중어 결의와 수정위원. 이번  
상정된 케안 권체에 대한 토의를  
끝내고, 주석으로부터 위원들의 새  
의견을 들으며, 각 위원으로부터 원  
안중에는 수정안 이외에 각기 사  
안(私案)이 있되, 케안할 기회가  
없으니, 각 위원의 사안 제시할 방  
법을 작정하자는 의론이 있어, 이  
윤재씨로부터 본회 해체후의 본회

임무를 맡아 정리할 수정위원회를  
두자는 케이가 있으며, 만장의 동  
의로 수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먼저 수정위원회의 권한을 의정할  
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이기로  
결의하다.

十月二十八日是

한글날(訓民正音 頒

布第四百九十回

紀念日)입니다.

되, 모순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것.  
二, 권문어는 각 권문가에게 조사하  
여 변경할 수 있음.  
三, 미결문제를 적당히 처리할 것.  
四, 원안중에서 신케안이 있는 것을  
처리할 것.  
각 위원의 사안 제출에 관하여는

팔월 이십일 이내로 서면으로 주  
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수정위원회에 언케든지 참석할 수 있  
으되, 언권은 케안에 한할 것이라 함  
을 결의하고, 권형위원으로서 추천  
한 수정위원을 다음과 같이 선정  
하다.

- 文世榮 尹福榮 李康來 李克魯
- 李萬珪 李允宰 李重華 李熙昇
- 張志暎 鄭寅承 崔鉉培

(그리다차례)

○폐회. 이와 같이 케안 토의  
와 사무처리를 원만히 마치고, 최  
후의 성공을 축하하는 기쁨으로 위  
원 일동이 기립하여 석장 이만규  
씨의 발성으로 『조선어학회 만세!』  
를 삼창하고, 화기 애애한 가운데  
폐회하니, 때는 팔월 일일 오후 이  
시 이십오분 한글 운동사상(運動史  
上)에 영원히 기념할 날이었다.

◇표준어 완성에 대한

각 신문사의 사설



### 한글 運動의 劃期的 收穫

標準語 查定 第三讀會 完了

#### 一

朝鮮語學會의 朝鮮語文 統一 運動은 再昨年 十月의 「한글 다듬법 統一案」發 表로써 第一段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 시 第二段 計劃으로 標準語 查定에 着手하여 去年 一月의 溫陽溫泉의 第一讀 會, 同 八月의 牛耳洞의 第二讀會를 마 친것은 이미 吾人의 記憶에 새로운바 이어니와, 그동안 委員 諸氏는 第二讀會 를 經한 查定案을 再審查하고 再整理한 다음 이 草案에 對한 社會 各方面의 意見을 諮問한後 드디어 去 三十일부터 第三讀會를 仁川에서 開하고 前後 三 日間 晝夜兼行으로 會議을 繼續하여 最 終 查定을 圓滿히 終了하였다고 한다. 아직 發表까지에는 修正委員의 最終修 正이 남았으므로, 前途에는 相當한 時 日이 있어 案 自體에 對한 批判을 내 리기는 어리우나, 如何든 이로써 標 準語 查定の 第一期를 마쳤으므로, 朝 鮮語文 統一 運動은 一步前進되어, 다

시 第三段의 프로그램에 着手하게 되 었으니, 이야말로 한글 運動의 劃期的 大收穫이라고 賞을 수 없다.

#### 二

集團的 乃至 社會的 生活에 있어서 語文의 統一이 如何히 必要한것과 現 今의 우리들이 語文의 不統一로 일마 나 不便을 느끼며 文化發展上 얼마나 큰 支障이 되어있는가는 다시 啞喉할 必要조차 없거니와, 吾人의 切實한 現 實的 要求에 應하는 民族文化의 大事 業이 着着 進捗되어 거의 完成의 域에 達하여 民族文化 建設의 基礎를 確立 하게 된것은 實로 朝鮮民族과 文化朝鮮 의 將來를 爲하여 慶賀不已할바이다. 同時에 이 事業의 오늘날 있게 된것은 이 舉族의 大事業에 先覺하고 多年이 事業을 爲하여 努力한 朝鮮語學會와 諸 朝鮮語研究에 盡瘁한 專門 研究家 諸 氏의 血汗의 結晶으로 이루어진것이니, 民族文化 事業을 爲하여 바친 尊貴한 勞力과 그들이 遭遇한 先驅者的 苦難 에 對하여 滿腔의 敬意를 表하지 않 을수 없을것이다.

#### 三

이제 우리의 期待는 查定된 標準語 發表에 集注되거니와, 이 標準語가 한 번 確定된다면 現代는 勿論, 今後 歷 史를 通하여 億千萬人의 意思表示의 符 號이 될것이니, 嚴肅한 意味로는 標準 語의 發表는 一面으로는 慶賀할 事實 이므로, 一面으로는 가장 恐怖를 느끼 는바이다. 萬若에 조금이라도 不自然 과 不便이 있다할진대, 그 累를 數千 代後에 남기는 結果가 될것이니, 元來 가 容易한 事實이 아니다. 勿論 斯界 의 權威들이 數年을 두고 時間과 努 力을 바친것이니만큼 不足과 잘못이 있 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니와, 發表前 의 一默一語에라도 格別 留意하여 最 終 修正에서는 적어도 一毫의 不備와 不便이 없도록 努力하여야 할것이며, 또 한걸음 나아가서 이로써 標準語 查定 과 朝鮮語文 運動이 끝난것이 아닌것만 큼 語文統一 完成의 最後의 一刻까지 研究와 努力에 弛緩이 없기를 要望하 는바이다.

#### 四

끝으로 이 事業은 비록 斯界의 權威 와 研究家の 손으로 案이 作成되었다



고는 하나, 一般 社會가 이를 支持하고 實行하지 않는다면 尊貴한 血汗의 結晶도 一片 空文化하고 말 것이니, 우리는 民族文化의 將來를 위하여 가령 多少의 不滿과 不便이 있다 하더라도 小異를 버리고 大同에 따라서 다 가지이를 支持하고 實行하여야 할 것이다. 이 社會的 支持야말로 이 事業 完成의 要諦요, 決定的인 條件이다. 지금의 우리에게 이 事業을 支持하고 鞭撻하여 이것을 完成하게 할 熱意와 實行力이 없다면, 民族文化 建設은 發展途上에서 破綻되고 말 것이며, 이 以上の 社會的 羞恥는 또한 없을 것이다. 우리는 朝鮮 語文 統一 運動의 一步 前進을 雙手를 들어 慶賀하는 同時에 모름지기 뜻을 가치고 實行을 가치하여 朝鮮語學會가 시작한 事業을 社會에서 完成하여 빛나는 民族文化의 塔을 建設하여야 할 것이다.

東亞日報(第五千六百三十五號)

查定된 標準語와 朝鮮民族

한 民族의 文化가 向上發展함에는 語

文의 統一이라는 것이 여간 重大且 有力한 契機를 지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綴字法의 統一、標準語의 查定、外來語音의 整理等은 朝鮮文化의 百年大計로 當然히 하여야 할 일이다. 이디 綴字法 統一案의 發布가 있어서 錯雜하던 綴字法이 理路에 당게 統一되어 가는 중이요, 이번에는 또 표준어 查定의 大事業이 지난 七月 卅日부터 昨八月 一日까지 三日間 仁川에서 열린 第三 讀會에서 圓滿히 完了되었다 하니, 이는 全民族의 함께 慶賀할 일로서 이러한 大事業을 차곡차곡 成就하여 가는 朝鮮語學會의 勞를 多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二

이 標準語 查定은 昨年 一月 第一 讀會가 열린던 當時에 吾人이 이디 이 일 이 文化上 意義와 그 影響에 論及하고 查定の 正否가 各 語彙의 生死榮枯에 至大한 關係가 있음을 高調하여 綿密且 慎重히 할 것을 要望한 바 있었거니와, 爾來 一年有半에 朝鮮語學界의 權威는 勿論이요, 諸般 學術方面의 專門家와 言論、出版機關의 當務者와 各地方의 方言關心者들까지 網羅한 查定會가 여러

번 열려 討議하고 修整하고 하여 드디어 最後的 會合인 第三 讀會를 마친 것이 다. 이만치 오랜 時日에 이만치 多方 面의 人士가 이만치 여러번 討議한 것이니, 그 查定한 結果는 우리로서 可能한 限에서 거의 完璧에 가까운 것이 되었으리라고 信賴하여도 좋을 줄 믿는다.

三

朝鮮은 江山이 겨우 三千里로 그리 큰 땅은 아니언만, 地勢關係、交通關係 等等으로 因하여 方言과 習俗에 있어 東西가 다르고 南北이 같지 아니하여, 或은 同一物에 名稱이 數種이며, 或은 同一 語로 指稱이 各異하여 잡어를 잡을 수가 없는 까닭에 文化發展上 意思疏通上 支障이 적지 않았던 것이며, 또 現在도 아직 그러한 形便에 있는 것은 吾人의 待人接物에 日常 痛感하여 오느바 이다. 그러므로, 日常用語의 標準을 定하는 것은 時宜에 適한 일로서 이의 決定이 늦으면 늦느니만치 여러가지 不便이 이에 伴할 것임은 다시 嘔々할 것도 없이 自명한 일인 지라, 따라서 여기에서 好事業의 成就를 (十二頁에 續)



# 方言採集에 對하여

京師醇相朝鮮語研究部

羅 莞 爾

내가 放學때 돌아다니며 옛들은 사투리에 재미있는 것을 좀 적어보려합니다. 『方言의 地勢를 따라 如何히 變하는 것인가』는 方言에 關心을 가진 이는 잊어서는 아니될 큰 問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方言이라는 것이 地理的 差異로 發生된 것이니, 이것을 沒却하고서는 方言이라는 것을 立言하기 困難을 것임 다.

시골에는 산골 말이 있고, 都會地에는 大處바다 말이 있으니, 우리 人類가 自然으로부터 받는 모든 影響은 人類 生活과 가장 깊은 關係를 맺고 있는 人類文化的 總合體 即 言語에 나타난다 함은 自然스러운 이치일 것이외다. 우리말에 많은 影響을 끼친 것이 또 하나 있

으니, 即 우리의 歷史입니다. 歷史와 縱線的 關係를 맺어왔다면 地理的 環境은 우리말에 橫線的 影響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의 말과 歷史가 如何한 關係를 맺어왔는가. 이에 재미있는 한 例를 들진대, 嶺南地方 에는 現今 『가시내』라는 小女兒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語源을 캐어보매, 위선 新羅 歷史의 一片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周知하 는바 新羅를 말함에 우리는 佛教를 聯想합니다. 佛教가 國敎이었고 따라서 宗의 勢力은 王族을 凌駕 하였다 합니다. 新羅人들은 祖上의 祭祀에는 먼저 宗을 불러 僧祭를 지내었으니, 現今까지도 그 地方俗 談에 貧家에 顧客이 頻繁함을 『가

난한 집에 僧祭 돌아오듯한다』라고 말합니다. 祖上의 祭祀는 曾祖父 祖父 各各 一年에 한번 밖에 아니 돌아오나, 僧祭는 그보다 더이니 자주 돌아오는 까닭입니다. 그들의 跋扈는 이것뿐이 아니었음니다. 處女가 시집을 가려 할적에는 반드시 錢에 와서 하루밤을 同寢한 然後에야 式을 舉行하였다 합니다. 新羅의 滅亡과 같이 이制度는 없어지고 말았으나, 以後 女兒에게 辱할 때 『가승래』(嫁僧來)라 하였으니, 音便으로 今日에는 『가시내』로 變한 것이라 합니다. 내가 일즉이 此 單語의 使用을 探知하려 忠州를 지나 徒步로 鳥嶺을 넘은 일이 있습니다. 대개 鳥嶺 以北은 『가시내』라는 말을 使用하나 稀少하고, 以南은 거이다 이 말을 使用하니, 即 이것이 地理的 差異로 니 小白山脈은 이 單語의 北進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鳥嶺 附近에 사는 개나리라면 京城에



서 말하는 連翹가 아니고, 山百合을 말합니다。同一한 單語가 全然別物을 말하는 대개 動植物名에 많으니, 그 이름을 誤傳함이라 推測합니다。또 다시 一例를 들건대, 太白山을 分水嶺을 삼아 以東 東海岸에서 함박꽃이라면 躑躅花이나, 以西 山脈 안기슭에서는 他地方과 같이 芍藥을 함박꽃이라 합니다。우리 言語라는 것이 이와 같이 地勢에 따라 變함이 있으니, 그 大略을 斟酌할수 있습니다。

우리 祖上으로부터 받은 모든 文化, 우리의 말이 아니었다면 무엇으로 이것을 相續하였겠습니까。言語가 그 民族의 藝術, 政治, 經濟, 哲學等 모든 新文化的 要素를 包摂하고 있다 말함은 이것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일찍이 두르게네 푸는 千八百八十年 六月 그 詩에 『祖國의 運命에 對하여 疑心과 孤寂과 冥想 가운데 너먼이(露語) 나를 머무르게 하며 나의 依支며 힘

이며 眞理다。자유스런 로시아말이며, 나라안에 일어나는 모든것을 보니 네가 아니었다면 어찌 失望에 빠지지 않았으랴。그렇지만, 이러한 言語가 偉대한 民族의 心물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그 누구겠느냐?』 國家主義者도 아니고 愛國者도 아닌 偉대한 코스모폴리탄으로 이러한 말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或은 더 以上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이 우리 祖上이 끼친 唯一 尊大한 心물일것입니다。

物質界에 貨幣가 있다 하면 思想界에는 言語가 있으니, 우리의 말은 우리들의 思想의 交換 要件인 同時에 思想의 容器입니다。많은 語彙를 가지고 있다 함은 第一義的으로 그 사람의 知識이 豊富하다고 論定하기 어려우나, 古今의 偉大한 文學者들은 많은 語彙를 馳驅하였다 합니다。英國의 文豪 밀톤은 八千의 語彙를 使스피아는 一萬五千의 語彙를 自由自在로 使用

하였다 합니다。

같은 理由로 한가지 말을 하는 그 民族의 語彙가 豊富하다 함은 情緒가 豊富하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그러면 우리는 이 豊富한 情緒를 어디서 맛볼것인가。오직 方言으로 그 地方의 特色, 情緒를 살펴볼수 밖에 우리들은 方言 調査로, 우리말의 變遷을 살펴, 朝鮮語學會의 辭典編纂에 한 도움이 되면 多幸이라 생 각하고 三年前부터 放學을 利用하여 한마디 두마디 모아 百五十頁 假量의 小冊子를지어 謄寫하여 學友들에게 配布한지라 이제 이것을 三分하여 本誌附錄으로 今月號부터 실리게 되었으니, 讀者 諸氏는 이것을 參考하여 그 地方에 빠진 單語 校正할 個所 그 地方 特有한 사투리 등이 있으면, 朝鮮語學會로나 右筆者 寓棲도 報告하여 주시었으면 고맙겠소이다。(京城府 社稷町 七의 二)



# 閑 是 非

◇金泰鍾氏의 새각

은 『얼개화思想』◇

申 瑛 澈

—(一)—

吾人은 金泰鍾氏의 한글에 對한 研究와 熱誠의 孜孜 不怠를 敬慕 해야 且 不 滿의 하나이다。그 러나, 스스로 돌아봄이 없이 他의 잘못만을 말하고 對 態度는 과 연 凶은것이인가

吾人은 泰鍾氏가 外來語 고쳐쓰 기에 對해 『적당한 外來語가 있음 에 不拘하고 새말을 만들음 하나 는 알고 들음은 모른다』 이라 함 에 對하여, 『뿌리가 흔들린 우리 말은 固有의 말을 尊重하고 닦아 야 하겠거늘, 文化의 先驅者로 自稱 하는 文士가 『物語』같은 말을 막 쓰는데는 어디서 오는 惡影響인지

아는가 모른다』라고 論했다。이 에 對하여 氏는 『널리 쓰이는것은 그거 쓸것이고, 그렇지 않은것은 拒 否하여야 된다』 하고, 『取消』따위는 前者로 『都合 場合 氣付』따위는 後 者로 例를 들었었다』라고 다시 말 했다。이 무슨 矛盾된 論旨인가。

『적당한 外來語가 있음에 不拘하 고 云云……』 하면서 어떤것은 널리 쓰인다 認定하고, 어떤것은 不然하 다 拒否하니 大體 『따위』라 함도 模糊하거나와, 氏는 과연 무슨 神 通力이 있어 그것을 一一이 判定 하는것이냐。前記 後者의 例로 들 었다 하는 用語는 『송오』 『바아이』 『기쓰개』로 쓰임을 排擊한다』 한것으 로 『도합』 『장합』 『기부』로써 쓰임을 排擊할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스스로 모른다고 할것이냐。 그러나 『十一月號의 그것도 그거 외 서 상관 없을것이다』 하는 뜻을 包 含한것이라 解釋함이 결코 獨斷이 아닌것이다。

氏는 과연 넓고 좁은 境界의 基 準을 어느곳에 두고 말합이나。 어 찌하여 『取消』는 『취소』 『受付』는 『수부』 見送은 『전송』으로 쓰임은 凶다 하면서 널리 쓰이지 않는다는 理由 로 『都合』은 『도합』, 『場合』은 『장 합』, 『氣付』는 『기부』, 『物語』는 『물 어』로써 쓰임을 拒否한다 하느냐。 吾人은 그 使用되는 範圍의 大同 함을 認定하는자이다。

氏는 과연 무엇으로 規定하려는 지 그 不徹底하지 않는가。 그들 날 말(單語)은 外來語의 資格이 없다。 全然 없는것이다。 차라리 원음대로 부름이 凶을것이다。

—(二)—

『스포오츠, 수부(受付), 취소(取消) 천지(天地) 등등은 本來는 다른나 라 말이나 우리말로 들어와서는 널 리쓰이고 있으므로 지금은 우리말 이다』 함은 氏의 論이다。 이에 對 해 吾人이 三月號에 『스포오츠』는 조선말이 아니다』 함에 다시 六月



號에 가로되 「스포오츠」가 조선말이 아닌것은 同感이다。그러나 「運動」이란 말과 같은 勢力을 갖게 되면 「조선말」이다」함은 무슨 幼稚한 論法이나。『우리말』이라 이미 말하고 『勢力』을 가지면 「조선말」이라 하니, 吾人은 金泰鍾氏의 珍論法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三)—

『동태러버렸다』라는 말보다는 『取消(취소)』라는 편이 현재 조선사람중에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말하니, 何必 洪碧初의 『동태러버렸다』로써 『取消』을 내세우고져 애쓰는가。

『銷刻』이라는 말이 있지 않으나, 吾人에게 向하여 「적당한 말」을 알려주었으면 나는 이 글을 쓰지 않았으리라」하는따위 態度는 人格의 幼稚를 暴露할뿐일것이다。要하건데 『外來語』는 語文 整理 運動 上의 重要な 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標準語 查定은 끝났으니,

綴字辭典이 나온 後엔 當然히 나을 問題이고, 語彙도 相當한 數에 達하는것인즉, 外來語가 整理될것은 必然의 過程안것이다。

—(四)—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쓰라』해도 일반에 쓰이는것은 먼 뒷날의 일이다」함은 氏의 이른바 流動的 處地에서 본 言語觀이다。吾人에게 다시 가로되 「歷史의 進行이 한개 인이나 한 무리의 「決議」와 「策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줄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 歷史에는 人爲的으로 어떻게 할수없는 「自然發生」과 「自然消滅」이 있는줄을 모를리 만무하리라。(그렇다고 人間이 歷史의 進行에 全然 無關係 한것이라고내가 말한다고 생각지 않겠지) 하였다。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소리니, 아무도 命命할자는 없을것이며, 吾人이 『外來語』는 고쳐쓰자」함은 그 커 『新語』를 새로 만들어」함이 아니라, 『對等의 固有語』를 찾자」함이

다。그만한 努力을 아끼는자는 같이 論할만한 資格이 없다。물론 普遍妥當性이 없는것이 여지없이 民衆에 依하여 淘汰될것이라는것은 군 소리가 될것이다。『歷史의 進行이 「策動」으로 되는가』함은 吾人에 對한 人格의 侮辱이 아닌가。 氏는 무엇으로써 吾人에 그와 같은 言辭를 주는것인가。그 輕率하지 않으나。

偉大한 個我が 能히 社會와 時代를 運轉하고 때로는 人類의 歷史를 左右한 事實을 吾人은 人類歷史의 證明으로써 아는자이다。 偉大한 個我的 힘의 發露와 崇高한 精神의 자취는 燦爛한 光輝를 發하고 있지 않은가。적어도 歷史를 배운자면 스스로 깨달을것이다。대체 『自然發生』과 『自然消滅』이란 무엇이냐。自然과 人文의 區別을 못하고 人類歷史의 進行이 因果임을 모르는 愚論이라 할것이다。氏여! 歷史는 偉大한 個我的 힘으로



左右되었다. 또 다시 左右될 것이다.

語文은 文學의 生命이고 文化的 源泉임은 周知의 事로써 各民族의 文學者는 語文에 대한 精進이 컸으니, 過去에 있어 프랑스 文學은 七詩人派를 비롯하여 여러 先驅者의 活動으로 그의 根本 精神이 樹立되었다. 곧 七詩人派의 功은 『佛語 擁護와 改善論』으로써 작함이니, 十六世紀 프랑소와 一世의 時代에 들어서 부터 로오마, 라틴의 偶像世界에서 自身을 救하고자 루사아르, 두벨레等 七詩人은 宣言을 發함이니

一、佛語는 결코 希臘語나 라틴語에 뒤지는 貧弱한 國語가 아니다.

二、自覺한 詩人은 佛語를 尊重하고 豊足히 하야 希臘古代의 詩歌에 뒤지지 않을 偉大한 詩歌創作의 利器가 되게 하자.

三、自覺한 新人은 刻苦精勵하야 古代 希臘文學을 研鑽하며, 新語를

創造하고, 舊語를 復活시키며, 語

法 文學卜의 慣用語를 豊富히 하야 古代希臘과 伊太利 詩歌의 莊重優麗한 本을 또도록 하자. 等の 綱領을 결고, 佛文學을 建設하려는 것이었으니, 무론 그것은 文法家的 言語學的의 努力이 아니라, 藝術家로써의 運動임은 두말없으나, 그네가 母語에 對한 忠實한 先驅的 使命을 다한 것도 두말이 必要하지 않다. 氏도 하야금 그때 잊게 했으면, 氏는 이들 게도 『歷史의 進行이 한 개인이나 한 무리의 決議』와 『策動』로 말미암아 생기는

줄 아는가』 했을 것이다. 스킨라 哲學者 오레스오무는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翻譯하야 그네 先進인 그

리사(希臘) 로오마(羅馬)의 文化를 받아들였으니, 한편 후마니즘의 澎湃한 源流를 이루고, 한편 프랑스 語彙는 豊饒하여졌던 것이다.

뒤 이어나온 차크아미요는 푸르랄 크英雄傳을 翻譯하야 申世紀의 陳

腐에서 헤매는 大衆에 크나큰 活

氣를 주는 同時, 數多한 새로운 날 말(單語)과 각말(術語) 또는 俗語를 續出し켜서, 後日 有名한 俗語辭典 編纂의 文法學者 뵈오즐리에 게 큰 權威가 되고, 갈망, 몬레뉴, 라블레의 三大 思想家의 頭腦로, 드디어 古典的 傳統精神의 樹立을 다하게 한 그네의 功績도 金氏는 『歷史에는 人爲的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自然發生』과 自然消滅이 있는 줄을 모르는자들이었다』라 抹殺하려는가.

그네는 이미 『策動』과 『決議』로써 歷史를 움직인 자다. 수풀 속에서 헤매이자 또한 거칠은 벌판에서

우리는 故國의 異邦人! 또한 愛蘭의 流浪人!

— S. S. Ferguson. —  
이리하야 아이랜드는 千年의 血 淚史를 가졌다. 언케나 英國의 갈 밀에 숨을 못 쉬었다. 겨우 一八



九二年 劇團 『아이랜드國民文藝座』가 탄생되고, 이것이 有名한 아베이座的 母胎가 됐으니, 아이랜드 文藝運動의 中樞이다. 同年 계릭·리이그가 하이드氏에 依해 結成되어 『愛蘭非英國化의 必要를 題目으로 英國文化의 愛蘭侵入으로 因한 愛蘭國有文化의 破滅의 잘못을 力說함을 比喩하여, 하이드氏는 勿論 예이츠, 싱그, 그레고리夫人, 무어等, 小壯文人의 詩歌, 小說, 劇 어느것에 펜을 잡든지 『아이랜드』를 버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네가 그네의 文化를 살리기 위한 努力은 以外에 되거나 많은 것이니, 泰鍾氏는 그래도 『策動』과 『決議』라는 말도커 이를 一笑에 불일 것이나. 무론 時代와 環境의 多를을 抹殺하려는 것이 아니다. 要는 努力과 要素에 있다. 外國語와 外來語의 區別을 바루 해야 된다. 집어넣어 쓰기만 하면 外來語가 되는데 自體의 成長이

라고 떠든대서야 그 沒常識함을 견줄 곳이 어디냐.

『暑中 御見舞합니다.

私の 家の 都合上 來十五夜에 兄上様の 御目目 掛하고커 하오니, 差支가 無하시면 其日에 農具仕入 屋과 インキ賣所 子供物語店을 御 敎하여 주심을 御願申候 早々 等の 『最新!』 書簡文을 氏等은 時代에 順應한 것이라 崇尚할 것이냐. 이럴 따위가 아무 나라의 글의 價値가 없음과 같이, 現時 一部 無識記者 似而非文士 類輩의 쓰는 『讀物』 『締切』 『口笛』 『取替』等 沒常識한 用語와 같이 結局 그네의 無識의 廣告 以外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모르는가. 그네는 좀더 공부할 것이다. 吾人은 결코 그것이 그네만의 허물이 아님을 모를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原因이 尠혀 그네만의 局限이라고 꾸짖음도 아니며, 또한 權限도 없는 자이다. 도리어 同情의 눈물을 禁하지 못한다. 다만 眞실로

(荷) 그것이 자랑할 現象이 아님을 말할 때 도리어 反擊하는 態度는 朝鮮사람으로써, 마땅한 態度가 아닌 것이다.

이 가운데서 넌리쓰이고 안쓰임으로 區別하고커 한다 함은 幼稚한 생각이다.

言語 研究는 冷情한 科學的 態度로써 할 것으로 무슨 意識의 鼓吹를 위한 方便이 되여서 絶對不可함은 常識의 所有者면 다같이 是認하는 바이다. 새삼스러이 큰 訓戒나 하듯이 『甲』이란 나라를 정치적으로 미워한 다든지 乙이란 나라를 事實上으로 싫어한다든지 丙이란 나라는 야만하다든지의 단순한 理由만으로써 그 나라 말이 우리말에 와서 同化됨을 거부함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一月號에 말함도 우수했거니와, 그에 대하여 『먼저 어느편이 同化되나를 생각하라』 『政治면 政治고 思想이면 思想일 것이지, 語文과 무슨 問題이나』 하는 三



月號 吾人の 反問을 만나자, 『나는 語文運動과 政治運動의 混同을 싫어한다고 먼저 썼는데, 마치 내가 兩者를 混同한것 같이 말함은 월일 일가』라고 六月號에서 逃避했으니, 이 卑怯하지 않은가 『混同을 싫어한다』고 어느곳에서 말했다는 것인가. 『말했다』함도 尤습거늘 『마치 混同한것 같이 말함이 월일이냐』함은 이 얼마나 못한 소리인가. 그와 같은 支離滅裂한 論旨도되는 到底何한글 運動에 對한 意見을 提出할 資格도 없음을 알라. 奇怪한 臆測으로 卽 卽의 말 하기에만 汲汲하지 말 것이다.

—(五)—

要言건데 外來語의 處理에 對해서 吾人は 그 核心만 自覺하므로 足한 것이다. 其餘는 學者가 할 일이 다. 卽우 綴字法을 개친자들로서 語學者然하야 『外來語處理問題』라 하고 無用의 橫說堅說이 必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吾人は 九月號

에 실린 東京 殷武岩君의 論旨도 金氏의 所論에 全的으로 贊同한 것인즉, 認識不足의 所致인 價値 없는 것으로 본다. 排外主義는 吾人도 絶對 排擊하는 바이다.

吾人は 絶對 空間을 無視하야 一律로 主張하며 時間을 否認하야 獨斷을 즐기는 자가 아니다. 殷武岩君의 無用의 근심인 所謂『外來語排除論』 『言語純粹性』이란 卽 卽의 愚論을 내세우는 자도 아니다. 卽 卽의 근심하야 外語 섞어쓰음을 是認시키고 卽 卽 하는 자부터 모자란다 할 것이다. 本末, 始終의 順序와 分數를 모르고 되는대로 外語를 뒤섞어 濫用하야 時代順應이라 하며 『이것도 外來語다』하는 자들은 語學의 礎石도 못된진 水平線 以下の 無識者들이니. 論議의 對象이 아니다. 吾人は 今日 重大한 歷史的過程에 서서 初學者들의 『喜劇』 구경을 願하지 않는 자의 하나이다. 守舊 頹廢의 小心固陋한 『상투思想』이 有害함과 같이, 輕

佻浮華의 小市民的 『開化思想』도 有毒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吾人は 如斯한 孤負의 徒輩를 볼 때마다 一嘆을 禁하지 못한다.

—壽春山房에서—

(五頁에서) 慶賀하는 所以가 있는 것이다.

四

卽 卽 朝鮮語 標準語는 信賴할만한 機關과 節次를 通하여 査定되었다. 다음에는 그 發表가 하루를 바쁘다 하게 되었다. 朝鮮民衆은 이번 査定된 標準語가 發表되는대로 이를 支持할 覺悟를 미리부터 가져야 하겠다. 勿論 各個人이 出生地의 말에 더 愛着心을 가지는 것은 自然스럽고 또 當然한 일이지 마는, 비록 畿內人이라 할지라도 標準語에 地方語가 採用된 것이 있는 境遇에 그것을 濫用하기를 꺼려한다면 이는 모처럼 成就된 事業을 阻害하는 것이니 卽 卽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이 査定에 設使 多少의 異議를 插할 點이 있는 境遇라도 그것은 後日 다시 全民族的으로 再査定할 機會를 기다리기로 하고, 우선은 小異를 버리고 大同을 取하여 그 대로 支持하는 것이 民族文化 運動 現段階의 當爲인가 한다.



方

言

永川地方

永川邑 後村洞 李好春

(上略) 나는 일즉이 「한글」이란

稱號에 絶對 無關心한자였습니다。

지금 繼續적으로 읽은 「한글」에

비로소 그 內容이 豊富하고 絢爛

한 순 한글에 一層 翫味性과 偉

大함에 驚愕할뿐이외다。

反省으로 漠然히 「한글」에 對함

이 아니고 徹底히 똑똑한 우리글

을 쓸수 있고 바루잡아 쓸 때까지

熱熱히 努力하고 있습니다。여러가

지 難關에 逢着하면되도 如前히熱

과 誠으로되 『한글』의 意義를 發

輝하고 普及하심에 다만 感謝의 禮

를 올리나이다。아직껏나로서는 한

글에 對한 意識이 不充分하고 똑

바루 쓰지 못한 羞恥心에 苛責을

받으면서도 두터운 汗顔을 들고 마

을(村) 方言을 他地方과 比較하야

들린 點을 뽑아서 올리나이다。

내내 꾸준하신 研磨를 就하오며

많은 鞭撻과 下教를 바라오며, 明

細히 調査가 못되나마 語學에 萬

分之一이라도 參考가 될가하는 遠

慮에서 이걸로 慶尙道 地方語를 紹

介하나이다。

쇠말 사투리

개구리(蛙).....개고리, 개구리

게(蟹).....기

그네(鞞鞭).....군디(추천)

글방(書堂).....서당

뜰(庭).....마당

망아지(小馬).....말망세의

버리지(虫).....벌거지, 벌쟁이

뿌리(根).....별기니, 별쟁이, 별

기

고기(魚).....게기

어서(速).....얼른, 어뜨

언니(兄).....형님, 시허

장님(盲人).....봉사, 참봉

팽이.....팽데이

겨우(僅).....케우, 케화, 에로무꼬

거울(鏡).....민경, 셋강

가볍다(輕).....게갑다

까맣다(黑).....깜다, 꺾영다

고양이(猫).....고내기

기다리다(待).....바렌다

길다(長).....질다, 지단라

간지럽다.....근지럽다, 지그럽다

두부(豆腐).....조피

커다(燈火).....선다, 시라

등(背).....등데기

마루.....청, 물리

무릎(膝).....장게이, 불락

볼(頰).....뽕, 뽕데기

수염(鬚).....쇄미, 쉬미

사내(男).....머시마

옹골(井).....세미, 옹골

중얼거리다.....쫓겐다, 씨부렁거리

다

졸다(眠).....자분다

가엾다(憐).....불상하다

공연히.....백케

무덤(墓).....미

희다(白).....하얗다, 허영다



차다(廉價).....험다  
 청냥(燐寸).....다황  
 숯(炭).....숯경, 껌칭  
 에누리.....어누리  
 을라리.....담  
 제질로(自然).....지졸로  
 파(葱).....페  
 무(大根).....무시  
 파리(蠅).....와렁이  
 시내(川).....거랑  
 닭(鷄).....달  
 모이.....몹시  
 비누(石鹼).....비늘  
 치마(女下衣).....치메  
 뒷간(廁).....청냥, 통시  
 거지(乞人).....걸뱅이  
 배추(白菜).....벵추  
 호미(鋤).....호맹이  
 지랭이(枝).....짜대기, 짝지  
 가루(粉).....가리  
 걸핏하면.....약간하면, 뻔덕하면  
 그저께(再昨日).....아래  
 방석(席).....자리

벼개(枕).....비개  
 소용(所用).....실데  
 여드름.....이드름  
 쪼자(市).....장레  
 이응고.....케와  
 요지음.....요세, 오세  
 목(首).....모가지, 쪼테  
 아무리.....남만, 암만  
 네거리.....종레  
 아이(小兒).....얼라, 가늘라  
 깨트리다(破).....깨다, 부른다  
 샘(泉).....세미  
 처녀(處女).....이나, 기집아  
 피리(笛).....통수  
 할머니(祖母).....할메  
 버리다(棄).....벗분다  
 지금까지.....其他地方 사투  
 리와 다른 点만 取해서 慶尙道  
 常習語를 紹介하오며, 매양 使用할  
 적에는 上記와 같거니와, 文字로서  
 記錄할 때는 대개가 다른것만 알  
 리어 주나이다.  
 左記는 永川 마을(村)에서 四方

十里 以上 들어가면 쓰는 常習語  
 끝을 「더」로서 맺는 말.  
 잣니더.....잣다는 말.  
 왔니더.....돌아왔다는 말.  
 가니더.....가지(行)를 앓고 곧 간  
 다는 뜻.  
 그랬니더.....그러하게 하였다는 말.  
 가시더.....가자는 말.

◆投稿歡迎

讀者 여러분의 귀중한 의견을  
 이 紙面을 통하여 발표하시기  
 를 바랍니다.  
 一、研究論文。 한글 연구에 관한  
 의견。  
 一、感想文。 본지나 후 다른 책  
 을 읽고 감상된것。  
 一、通信文。 한글에 관계된것으  
 로 본사나 친구에게 보낸 글월。  
 一、研究資料。 지방 사투리, 傳  
 來童話, 民話, 傳說, 古談等 其他。



# 말미와

# 대답

〔말미〕 一、다음 말의 구별.

그럼하므로와 그럼함으로

놓지다 와 놓치다

二、다음 말이 어느편이 맞습니까.

잊지말라 잊이말라

웨 왜

(하, 오, 人生)

〔대답〕 一、『하므로』와 『함으로』

가 소리는 다 같으나, 쓰이는 곳

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문법상으

로 보면, 『므로』는 대개 풀이씨

(說明語)에 붙는 씨끝(語尾)에 쓰

고, 『으로』는 임자씨(主語) 아래

에 달리는 토(助詞)에 씁니다. 말

의 보기를 들면

「 붓으로 글씨 쓴다

마음으로 기뻐한다

이것은 『으로』의 보기

「 비가 오므로 모가 자란다

질이 멀므로 가기 어렵다

이것은 『므로』의 보기

이렇게 달리 쓰이는데, 곧 『으로』

는 무엇무엇을 가지고란 뜻이니,

남의 말에 with나 by와 꺾와 같

은 것이요, 『므로』는 까닭이란 뜻

이니, De cause와 카와 같은 것

입니다. 또 같은 소리로되 『함으

로』라 쓸 때도 있고, 『하므로』라

쓸 때도 있습니다. 『함으로』라 하

면 『하다』라는 움직씨(動詞)에

이 붙어서 이름씨(名詞)로 바꾸

인 것이므로 위에 보기의 기에 해

당합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 커 사람은 밤낮 공부 「함으

로」 일삼는다

「 그는 공부 「하므로」 높은 사

람이 되었다

「 동무들아 「기뻐함으로」 노래

부르세

「 마음이 「기뻐므로」 춤추며

노래한다

위의 말에 『공부함으로』 『공부하

므로』나 『기뻐함으로』 『기뻐므로』가

소리는 꼭 같으나 그 말의 쓰

이는 범이 각기 다름을 살피어

보시오. 그리하여도 잘 모른것거

든 다른 나라말을 번역하여 비교

하여보면, 잘 구별될 것입니다.

『놓지』와 『놓치』가 역시 소리

는 같으되 그 쓰이는 곳은 다릅니

다. 『놓지』 아니한다 『할 때』는 『놓

지』로 쓰고 『놓치』어버렸다 『할 때』

는 『놓치』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놓지』의 『지』의 유취되는 말도는

가지. 아니한다

먹지. 아니한다

와 같은 것이요 『놓치』의 『치』에 유

취되는 말도는

받치다(支)

뺨치다

엮치다

와 같은 것입니다.

二、『잊지』말라』가 맞습니다. 『잊

이 말라』라는 것은(二十四頁에 續)



# 『한글』을 읽고서

豊山李相寅

『한글』이란 雜誌를 읽고서 나는 다음과 같은 意見を 本會에 올린 다.

한글이라는 것은 朝鮮語學會에서 發行하는 雜誌다. 雜誌로서도 朝鮮文學의 基本이 될만한 權威가 있다. 이러한 雜誌를 出版하는 朝鮮語學會야 더욱이 半島의 精神을 左右할만한 權威가 있을 것은 贅言할 必要가 없거니와, 이 雜誌로 보아서 나의 느낀바가 적지 아니하다.

첫째로 朝鮮語文 統一 또는 語文 經緯을 세우기를 目標로한 朝鮮語學會로서 이 唯一의 機關誌인 한글에 對하여 너무나 貧寒을 느끼는 것이 나의 意見에서는 적지 아니한 遺憾으로 생각한다. 웨그러나 하면, 半島의 文學 基

本을 自擔하고 躍進 向上에 努力하는 이 學會에서 이 한글 一冊을 擴充시키지 못할리 없겠고, 이 擴充에 對하여 一般 讀者들의 贊成이 적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爲先으로 한글 內容에 渴望하는 것은 月例會의 會順, 講演한 演辭, 同席上의 文士 座談集 같은 것. 또는 講演會때 講演한 演辭 그 모두가 한글 讀者의 唯一의 愛讀할 題目이 아닐가? 다음으로 質疑欄을 지금보다 더 擴大하여 讀者의 불응을 公開하여서 朝鮮語學上에 莫大한 參考가 되도록. 學會에서 訂正한 詩集 小說集 그 모두를 公開할 것. 앞으로 보아서 統一案에 들린 書籍은 購讀할 價値가 없으리라고 믿어진다. 다시 말한다면, 한글 紙面 擴大, 內容 充分에 對하여, 紙面은 百頁도 좋고 二百頁도 좋을 것이요, 따라 內容도 充分히 하는데 對하여서 물론 그 經費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誌價를 올리지 아니하면 到底 아니될 것이다.

나는 以上과 같은 感을 쓰는 것이 或은 『不在其位, 不謀其政』이란 評이 있을는지 모르나, 나는 『한글』 讀者일뿐 아니라, 朝鮮語學會를 無限히 贊成하는데서 吝 것이다.

朝鮮語學會의 急務는 機關誌 擴張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感覺은 『한글』 讀者치고는 同一하리라고 믿는다.

一般 既知의 感이라, 나의 區區한 管見을 기다리지 아니할지라, 이에 蛇足の 憂를 避한다.

## 新刊紹介

### 新羅誌

本書는 朝鮮 古典學에 造詣가 깊은 止齋 金瑗根翁의 著로 新羅 千年古都의 遺蹟을 簡明히 叙述한 것이다. 定價 五拾錢. 發行所 大邱府 新町 三一六 火柱社(振替 釜山 一七九二番)







용기(勇氣)

용맹(勇猛)

용맹스럽게

우(上)

우에서는

웃동내

우거지다

우거진

우리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우물

우물결에

우유(牛乳)

우취롱

우편국

우표

운동(運動)

운동중에서

운동장

운동회

운반

운반이되는것이다

을

을밀에서

을었습니다

용기

을었습니다

을리다

을리면서

을창하다

을창하여서

을지기다

을지기는

을다

을엇소

을음소리

을으운

을으시겠지요

을은관에

을고

을음

을으십니다

을습다

을습터라

을대하다

을대함이

을장스럽게

을장스럽게

을하야

을하사

을달리

을명하다

을명한

을창하여서

을즉이다

을즉이는

을엇소

을스운

을으시겠지요

을습다

을습터라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을명한

유수하다

유수한것

유월

유월이라하고

유희(遊戱)

은인(恩人)

은세계(銀世界)

은진미륵

은행

은력

음식

음악

음(邑)

응원

응원하얏스나

을다

을는다

을이오

의견(意見)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논

의사(醫師)

의면(義捐)

의면(義捐)

이(齒)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응원하였으나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의기양양하야

의기양양하다







일곱  
일곱까지  
일곱시  
일과(日記)  
일과(日氣)  
일기임으로  
일동(一同)  
일르다(漚)  
일려오든  
일상(항상)  
일삼  
일삼으로  
일월(一月)  
일월인데

일기  
일기  
일기이므로

일려오던

일주  
일중  
일곱  
일곱년의  
임자(主)  
임(口)  
임다  
임습니다  
임어라  
있다

잇다  
잇소  
잇다가  
잇었소

잇다  
잇소  
잇다가  
잇었소

잇고나  
잇쳐야  
잇습니다  
잇스니  
잇섯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스면  
잇든  
잇대다  
잇대여잇는대를  
잇브다  
잇브상스럽습니다  
잉어(鯉)  
잇다  
잇어버렸소  
잇지안코  
잇을  
잇사귀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잇고나  
잇어야  
잇습니다  
잇으니  
잇었습니다  
잇겠지  
잇는데  
잇었는데  
잇나보다  
잇슬리가  
잇쳐서  
잇으면  
잇던

### 새말 읊겨쓰

受 付 ॥ 받아들.

氣 付 ॥ 청신차림.

花 形 ॥ 고운것. 고운얼굴 (一般 女子의 꽃다운 얼굴을 말함)

役 割 ॥ 몫지움.

見 送 ॥ 념(我地方言). 보와보냄. 보내보기. 보아떠남.

乘 組 員 ॥ 란사람. 한계란사람.

乘 合 ॥ 한계탐. 모두타기. 다타기.

跳 下 ॥ 뛰어내림.

波 止 場 ॥ 불결막이.

引 渡 ॥ 주어말임. 넘게줌.

取 消 ॥ 지워없앰. 없애버림.

手 配 ॥ 갈라줌. 갈라시킴.

吹 込 ॥ 소리갈음.

拂 下 ॥ 내줌.

封 切 ॥ 처음비침.

平北 碧潼郡 鸛會面社上洞

張 至 用



# 崔鉉培氏의

## 『시골말개기잡책』

한 메

한글學界의 耆宿인 崔鉉培氏의 著  
시골말 개기 잡책(方言採集 手帖)  
이 近日 刊出되었다. 이것이 發行  
되지 不過 旬餘에 거의 絶版에 이  
르러, 往年 同氏의 著 『중등조선말  
본』의 發行時와 꼭 같은 現象이었  
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出版界에  
흔히 있지 아니한 일로, 도리켜 생  
각하면, 便是 우리 人士의 우리말  
우리글에 對하여 얼마나 飢渴이 심  
하였던가를 想像할만큼 과연 눈물  
겨운 일이 아닌가.

이 『시골말 개기 잡책』은 그 책  
이름에 의와 같이 한개 조그만 잡  
책(手帖)에 지나지 아니할 것으로,  
누구라도 草率하게 보기 쉬우나,

이것이 우리말 調査、整理、保存의  
必要로, 또 教育的 效果로, 더욱이  
우리말 愛護의 精神을 기르는 意  
味에서 가장 重要性이 있음을 안  
다.

이 책의 內容을 잠간 소개하면, 全  
卷이 語彙編、音聲編、語法編의 세  
조각으로 나누이고 語彙編에는 天  
文、地理、動物、植物、人體及疾病、  
人倫、衣食住、人事、年中行事、農村  
語彙、漁村語彙、山村語彙、雜、음주  
씨(動詞)、어뎡씨(形容詞)로 가르고,  
音聲編에는 다시 홀소리의 바꿈(母  
音의 變化)과 닿소리의 바꿈(子音의  
變化)과 音의 長短과 抑揚으로 가  
르고, 語法編에는 벗어난 글바꿈을  
즉씨(變格活用動詞)를 주로 하여,  
여러가지의 글바꿈(活用)을 列舉하  
여 놓았다.

以上 三編을 通하여 語彙의 數  
가 約 一千인데, 그 各部門의 語

彙中 日常生活에 가장 緊要한 것,  
또 地方的 差異가 많을 듯 한 것을  
취하였으며, 또 새로 輸入되는 新  
式語에 對한 朝鮮 固有의 말을 또  
렷하게 再認識시키기를 힘썼다. 이  
에 對한 著者의 苦心이 實도 적  
지 아니하였을 것을 생각한다.

이 잡책은 方言 採集의 初步의  
學習이 되며 아울러 從來 無案法  
이 흔히 徒勞에 떨어지고 마는 缺  
陷을 김기 의하여 制限法으로써 一  
定한 語彙、語音、語法의 시골말 개  
기에 至便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  
는 것이다. 이것이 地方으로 旅行하  
는 人士、또는 休暇時 歸鄉하는 學  
生에게 많이 利用이 될 것으로 믿  
는다. (시골말 개기 잡책 값 三十錢  
發行所 朝鮮語學會 振替 京城 一  
〇〇四四番)



## 하멜표류기 (七)

一六六〇年(顯宗元年)에 새로 부임한 병사(兵使)는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여, 그는 가끔 말하기를, 자기 권한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들을 고국으로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우리 홀랜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무 체재없이 우리에게 출입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었다. 이어 가불이 심하여 모든 종류의 곡식이 없어지고, 다음해(一六六一)에는 더욱 참담하게 되어 주려죽은 자 많고, 노상에는 도적들이 횡행하였다. 왕께서는 엄명을 내리어 도적을 특별 징치하게 하여, 이로써 강도살인의 성행을 막게 하였다. 또 왕은 영을 나리사, 산야에 버린 시체를 매장하게 하였다. 도로리, 라이나플 및 기타 산야의 과실은 인민의 식료품의 전부였다.

기근은 여간 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촌락은 곳곳에 약탈을 당하고 나라의 창고까지 타래되었으며, 이들 범범은 대개 대관의 하친배들이 행한 까닭에 이에 대하여 아무도 형벌을 쓰지 못하였다. 이 참화는 양년(一六六一—一六六二)에 걸쳐 있었다.

다음해인 一六六三년(顯宗四年)에도 그 영향이 미쳤으니, 대개 빈민들은 낙농하지 못하고 비록 낙농은 하였으되 아무 수확도 없었다. 그러나 하친 관개의 이익을 입는 곳이라든지 소택 부근지에는 농작물이 풍요하여 그것으로써 보충되었는데,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이나라는 전멸되었을 것이다. 우리 곳(唐津)에는 우리 생활비는 유지공립할 가망이 없이 병사는 이에 관하여 이도 장관(長官)에게 공문을 발하고 구조를 청하였더니, 거기서 대답이 오기를, 상감께서 이미 그곳을 지칭하시 홀랜드인의 생활을

유지하게 하도록 하였은즉, 상감의 명령이 없이는 판곳으로 천동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이월말쯤 되어 병사는 조청 명령에 의지하여 우리를 세 고을에 나누어 두되, 세싱(Saisingh || 左水營)에 열 두사람 순천(Sintchen || 順天)에 다섯사람 남만(Namman || 南原)에도 그만큼 보내니, 이때 우리는 다시 이십이 인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때부터이다. 이 작별은 우리에게 여간 애달픈 일이 아니었나니, 안락한 처소에 처함께 모여있어 좋은 음식을 쌓아 놓고 하룻기반게 지내던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를 기근의 난에 노력고행할 곳으로 보내주지나 아니 할가 하여 더욱 염려하였다. 그러나 이 슬픔이 뒤에 기쁨으로 변한 것은 천동이 다음에 보일바와 같이 우리에게 망명의 좋은 기회를 열어준 것이었다. 삼월초에 병사에게 고별하고 여태까지 그의 친절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를 드린 후, 우



리는 — 병인과 형상은 말우에 실리  
고 — 도보로 떠났다. 좌수영(左水  
營, 시방麗水)과 순천(順天)으로 가는  
사람은 함께 동행이 되어 첫날밤과  
다음날까지는 다 같은 읍에서 묵  
었다. 제삼일에는 순천에 이르러 다  
섯 동무는 거기서 떨어져게 되었  
다. 다음날 밤에 한촌에서 묵고,  
익일 일은 아침에 떠나, 오천 구  
시경에 좌수영에 이르니, 우리를 데  
리고 온 관원도 그곳에 주재한 권  
라도 수사케독(水師提督 水使)에게  
우리를 맡기었다. 케독은 곧 우리  
에게 숙소와 및 필요품을 주며,  
지금까지 지내오던대로 범백을 급  
여하였다. 그이는 우리를 보기에,  
매우 온호하고 간직한 상관이였다.  
우리가 이곳에 온지 겨우 이틀만  
에 수사(水使)는 갈리어 조청으로  
올라가고, 그가 떠난지 삼일에는 신  
관이 도임하였는데, 신관은 우리를  
괴롭게 할 편달로밖에 여기어지지 아  
니하였다. 왜그리나하면, 그는 우선

우리를 자기 앞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몹시 더운 여름, 추운 겨울  
에도 모든 괴로운 일을 시켜었던  
까닭이다. 그가 우리에게 하겠고  
맴게 하는 것이라고는 그 관속들의  
화살 만들 나무를 베어오라고 내  
보내는 것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연  
습이란 것은 늘 활 쏘는 것뿐이었던  
데, 관속들은 서로 다투어 천사자  
가 되려고 하였다. 수사는 이밖에  
우리에게 여간 많은 어려운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지만, 하느님은 우  
리를 위하여 보복을 주었다. 겨울  
이 가까워지매 이 고을에서 우리  
가 과득할 비애를 더 느낀 것은 방  
한에 필요한 보조품을 얻지 못하였  
으므로라, 이에 수사에게 구하되,  
다른곳에 있는 동무들은 얼마나 좋  
은 경우에 처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유독 우리만이 그러하지 못하니,  
청컨대 우리로 하여금 방한의 필  
수품을 나아가 구하도록 허하여 달  
라고 탄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삼

일간의 말미로 외출을 허락하되,  
우리의 반은 그이 앞에 남아있고  
반은 외출의 자유를 얻기로 하였  
다. 이 자유의 허여가 우리에게 매  
우 이로웠던 것은, 우리의 경우를 동  
정하는 귀인들이 노자를 두터이 보  
태어주는 것과, 어느때는 일삭이나 타  
쳐에 가있는 것을 허락하기도 함이  
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으면 가  
지고와서 읍에 남아 있는 동무들  
과 공유 공용하여 수사의 떠날 때  
까지 이와 같이 계속하였는데, 그이  
에게는 조청으로 돌아오라는 왕명이  
나리었다. 그가 왕경(王京)에 들어  
가자, 곧 대장의 배봉(拜命)이 있  
었으니, 그 직무는 이 나라의 케이  
위 인물의 하는 일이었다. 그의 후  
임으로 온 수사는 우리가 우습껏  
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부담을 면  
제하여 주며 다른 두 고을에 있는  
다른 동무들과 같이 대우하기로 친  
언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우리는 오  
직 한달에 두번씩 집합 청호를 치



륙뿐이었으며, 번차례로 집을 지키고 언케든지 나가고싶은 때에는 말미를 청하고, 혹은 나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기에게 통시하여 있는 곳을 알도록 하게 하였다. 악한 관리를 보내고 착한 관리를 맞은데 대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무한히 감사할 줄 알았다. 신관은 우에 말한 관후한외에 가끔 불려 음식을 대접하고, 간절히 우리의 비운 불행을 식탄하여주는 동시에, 그가 문기를, 연해지방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어찌서 커 일의대수를 격한 일본으로 건너가지를 못하였느냐고 하였다. 우리는 대답하되, 상감의 뜻에 거슬라는 그런 일은 감히 할 용기도 나지 못하였을뿐더러, 가는 길도 모르고 배도 얻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수사는 이에 대하여 바닷가에 조그만 배들이 좀 많으나고 반문하였다. 그 배들은 우리 소유에 속한자도 아니고, 또 만일 목적을 달하지 못

하고 잡힌다든지 하면, 도적 또는 도망자로서의 엄벌을 당할터인 까닭이라고 우리는 대답하였다. 수사(水使)는 우리가 오직 그의 의심을 털고쳐 하야, 그와 같이 한 말인줄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의 식사(飾辭)에 대하여 웃었으며, 그는 우리가 실상 주사야탁으로 어땡게 하면 배를 한척 잡아탈가고 심노려하고 있는것이라든지, 또 누가 우리에게 배를 탈 때까지 아무 장애도 없었으면 하는 욕망이 있는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때 소문을 들은즉, 우리의 권수사는 영직을 누린지 불과 육개월에 불법형외로 어천에서 국문(鞫問)을 받았다 한다. 그 이유는 그가 반상의 다수한 사람을 사소한 일에 죽게 한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장(杖) 구십도와 종신유형에 처하였다.

이해(一六六四年) 연말에 한혜청이 나타나고 또 얼마후에 그런 별들이 일시에 나타났다. 첫번것은 약 두달동안 동남간에서 보이고, 둘째번것은 서남간에서 보이며 꼬리가 서로 반대방면에 뻗어있었다. 조경에서는 이에 비상히 경동되어, 왕게서는 엽을 나리어 모든 포구와 선박에 경비를 더하게 하고, 동시에 양식과 군수품을 각 산청요책으로 운반하게 하고, 기병 보병을 막론하고 모든 군대를 날마다 조련시키어 이웃 어떤 나라의 침입이 장차 있을줄로 여기었다. 그리하여 바닷가에 서 보이는 민가에는 어느 곳을 불문하고 밤에 불을 켜지 못하게까지 하였다. 평민들은 단지 겨우 살아갈만한 분량의 양미만 남겨놓고 기타 모든 소유물을 소비하니, 그 이유는 권에 청인이 이 나라에 침입하야 인명과 재산을 약탈하였을 때에도 이와 같은 별의 징조가 보였던것이며 또 그전에 일본인이 조천에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에 앞서 그러한 현상



이 나라났던것을 역시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소이다. 우리들이 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문기를, 너의 홀랜드에서는 혜성이 나타나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 하느냐 하거늘, 우리는 말하되, 천벌이 나릴 때 그런 권조가 있고, 또 혼히는 역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있을 때 그러하고, 또는 이 세가지가 일시에 가치 생길것을 의미하는것으로도 해석한다고 하였다. 그런즉 이러한 경험을 가진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찬성하였다.

우리는 이 해와 다음해인 一六六五年(顯宗 六年)을 매우 안온하게 지내고, 항상 배의 소유주가 되어 보려고 권력을 다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후 어느때는 작은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생애를 구하여보기도 하고, 또 어느때는 작은 식들을 돌아다니며 우리의 사에 적합한것 우리의 망명에 적당한 것이나 없을까 보려다니기도 하

였다. 다른 두 고을에 있는 동무들은 매우 우리를 찾아와 보며, 우리도 수사의 기색을 살피어 이따금 그들을 회사 망문하였는데, 어떤 곳 동무는 다른 곳 동무보다 더 행복스러운이도 있었다. 그러나 좌수영의 우리는 무서운 함대 밑에 굳이 참고 굳이 참았다. 동시에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의 건강을 허락해주어, 그 오랜 부로생활중에 용히 유지해오게 된것을 크게 감사히 여기었다. (또잇소)

(十五頁에서 續) 첫째 발음을 들리니,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웨』와 『왜』는 표준어로써 작정할것인데, 아마 『웨』로 작정된 듯합니다. (이운재)

【물음】 귀회 회원李克魯씨의 주소를 한글 지상으로 좀 알려주세요. (唐珠洞 李貞世)  
 【대답】 주소는 京城府 鍾岩里 四〇번지입니다.

## 조선어학회

### 소식

지난 유월부터 칠월까지 매일 오일 오후 세시에 조선중앙일보사에서 이극로(李克魯)님을 청하여 한글 맞춤법 강연을 하였다.

팔월 오일부터 동 십일까지 서울 경운동 천도교 청년동맹에서 정인승(鄭寅承)님을 청하여 매일 한 시간씩 한글 강좌를 열었다.

최현배(崔鉉培)님은 『시골말 캐기 잡책』을 지어서 지난 칠월에 발행하였다.

이락(李鐸)님 지난 칠월에 경주(定州) 오산고등보통학교(五山高等普通學校)를 사면하고,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 자락에서 휴양중이다.

정인철(鄭寅燮)님 팔월 이십칠일 너케국 코벤하겐에 열릴 국제언어합대회(國際言語學大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팔월 삼일 오후 칠시발 북행열차로 출발하였다.



한 글

바루 잡아 쓰기

힘 익

옆에 쓴 것. 이 바른 것. 이를 꼭 때 자매자 맞 후어서 보 시오.

속담 (四)

마루(坂) 너른 수레 내려가기.

마른 나무에 불 내기다.

말은 나무에 좀 먹듯.

마름쇠도 생킬놈.

마마 그릇되듯.

마방집이 망하랴면 당나귀만 드러

온다.

마음을 잘 갖이면 죽어도 옳은 귀

신이 된다.

마음을 잡아 개장사라.

마암 한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구버보신다.

마음이 혼들 뺨죽이라.

맛치가 가비우면 못이 솟난다.

막다른 골목이면 돌아선 도라는다.

막동이 씨름하듯.

만날 명금영이다.

만득이 북 질머지듯.

만석준(萬石俊)이를 놀린다.

말 가난데 소 간다.

말고기를 다 먹고 무삼 내암새가 난다.

말고기 자관인가.

말깨 시렸든것을 베투기 등에 사실

르라고.

말도 생피를 본다.

말똥도 몰으고 마의(馬醫)노릇한다.

말똥에 굴너도 이생이 좃다.

말 많은 집은 장도 쓰다고.

말말 꽃헤 단 장을 달라고.

말머리에 재기가 있다고.

말살에 쇠살에.

말(斛)위에 칼을 얹는다.

말(言)은 이(風) 죽이듯 한다.

말하난 남생이라.

말은쇠를 띄었다.

맛 업난 국이 뜰업기만 하다.

망건 편자를 줄난다.

망등이가 뛰닛가 천라도 비짜두가

된다.

망신살이 무지갯살 뺨치듯 하였다.

매골방자(埋骨防者)를 하였다.

매 위 장장 잇나.

매 한개 맛지 안이하고 활확 다



분다.

맹상군(孟嘗君)의 호백구(狐白裘) 및

듯.

머리가 모시 바꾸니가 되었다.

머리 거문 김생은 남에 공을 몰로

은다.

머리를 깎기었다.

먹는 죄는 없다.

먹기난 발장(撥長)이 먹고 뛰기는

말다려만 뛰란다.

먹기난 배지(背的)가 먹고 뛰기난

과발(把撥)이 된다.

먹지 않는 종과 투기 업난 안해.

먼 일가와 갖가운 일가.

먼저 먹은 후담담(後番番)

명군 장관이야.

메고나면 상투군, 들고나면 초롱군.

메느 미우니까 뒤축 달게

알 갖다고.

메느 자라 시어미 되니 시어미

리 더한다.

명득(命得)어미냐, 욱도 잘한다.

명문(明文) 집어먹고 후지 못 놀음.

멧꾼짜리나 되나.

모기 밧구멍에 당나귀 신이 당한

모기를 보고 칼 뺐다.

모로 가도 쇠를만 간다.

모밀떡국에 상장고 치랴?

모주장사 열바가지 들으듯.

모진 돌에 청맛기로.

모화관(慕華館) 동남앗치 떼쓰듯.

목구멍에 때도 못 씻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랑청도(睦郎廳調)라.

목 메인 개가 게 탐하듯

목 짙은 강아지가 게침 너머다보

듯한다.

못된 나무에 열매가 만다.

못된 바람은 동대문 구멍에서 들

려오다고.

못 먹는 쇠아가 소래만 난다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쇠뿔이 난다.

못생긴 머누리가 케삿날 병난다

고.

못된 버러지 모로 된다.

몽둥이 들고 포도청 담에 올는다.

멧돌 잡으려 갖다가, 집똥 일었다.

무게가 천근이나 되네.

무난 악아리와 깨진 독사슬 갖다.



무난은 말이 있는데 차는 말이 있다.  
 무난은 호랑이 뿔이 없다.  
 무당이 케 곳 못한다.  
 무당질 삼연에 목독이라는 귀신 못 보았다.  
 무 밧동 같다.  
 무 밧동 같다.  
 무당의 영령 신인가.  
 무른 당 말독 박기라.  
 무쇠두멍을 쓰고 소에 가 빠졌다.  
 물독 뒤에 자라 났나? 키도 크다.  
 물 때(潮時) 썰 때(汐時)를 안다.  
 물본 기러기요, 꽃 본 나비라.  
 물만 밤이 목이 메인다.  
 물어 무리도 준치 썩어도 생치.  
 물에 불 탄이 술에 술 탄이.  
 물에 빠쳐도 주머니 밖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물에 빠진 새양쥐 같다.

물 위에 기름.  
 물 위에 수결 같다.  
 물은 트는대로 흥은다.  
 물이 가야 배가 온다.  
 물이 안이면, 것이 말고, 인칭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  
 물 주워 먹을 새이가 없다.  
 물란 피가 킨편(全謀)을 속이라 한다.  
 미운 아기를 품에 품으랴고.  
 미운 자식 밤 만히 먹인다.  
 미운 쥐도 품에 품는다.  
 미주알 고주알 밧두리 콧두리 찬다.  
 무삼 뽕죽한 재조가 잇나.  
 목은 거지보담 다행했다.  
 문 바른 집은 쉬도 입빠른 집은 못 쓴다.

문부(門符) 게구 불이 꺼구로 붓치고 환장이 나 무란다.  
 문쳐 업는 상연.  
 문 열고 보나 단 맛고 보나 보기는 일반이라.  
 문채 조흔 차복성(車福成)이라.  
 문은 불이 이려났다.  
 무든 불이 이려났다.  
 물거미 뒷다리 같다.  
 물고 차는 말이다.  
 미친 개 다리 틀나듯.  
 미친 개 눈에 몽둥이만 뵈인다.  
 미친년의 속곳가래 빠지듯.  
 미친 중 집 헐기라.  
 미친척하고 떡 가게에 업드린다.  
 미는 나무에 곰이 피었다.  
 밧기를 새옹에 밤을 지어 귀개로 피쳐 먹었다.  
 밧 빠진 가마에 불 기러 붓기다.



# 序 言

言語의 教育은 標準語의 教育이라야만 되겠는데, 여기 方言을 蒐集  
 함은 무엇때문인가. 方言은 或은 『사투리』라고도 하여, 그 地方에는 반  
 드시 그 地方의 사투리가 있어 어떤 微妙한 感情을 表現하려고 하  
 면 사투리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될 때가 종종 있지만, 이를 全  
 體로 버디탈 때는, 그 方言이 있으므로 말미아마 他地方間의 感情의  
 疏通이 自由스럼지 못하고, 思想의 傳達의 敏捷하지를 못하여, 文化普  
 及上 缺陷은 障礙가 있음을 免지지 못하는 일도 있다. 따라서 教育  
 의 普及은 하루바삐 標準語의 普及에 用力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다시  
 贅言을 要하지 않는바이다.

그러나, 또 한편 實際方面을 떠나서 이를 純粹한 學究上으로 본다면,  
 方言中에는 가끔 言語의 古形을 存續하여, 그 言語의 本質的 價値를 究  
 明함에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 時代의 趨勢를 떠나 漸  
 漸 磨滅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紙面上으로나마 保存하  
 는 것은 言語 研究上 尙히 必要한 일이다. 이것은 要言건만 우리들의  
 方言을 蒐集하는 理由라 하겠다.

朝鮮語 研究部員의 昨년에는 民論을 蒐集編纂하고 今年에는 다시 그  
 姉妹篇인 方言集을 編成하여 나에게 그 序文을 命하였다. 생각건대,  
 方言의 蒐集은 民論의 그와 같이 重要한 일이며 또 困難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研究部員은 能히 이를 遂行하였다. 實로 艱苦를 참지  
 못하여 辭를 양고 이 數言을 보너, 諸君의 앞날에 더욱 많은 成果  
 있기를 바라는바이다.

四百八十九回 한글날 後 二日

陶 南 學 人 答



天文地理

漢字	서울말	京畿道	咸鏡道	平安道	黃海道	江原道	忠清道	慶尙道	全羅道
星	별	별 (定州)	별 (定州)	별 (定州)	별 (定州)	별 (定州)	별 (定州)	별 (定州)	별 (定州)
雷	우뢰	천둥 (龍仁)	소낙 (北青) (北青) (咸津) (利原) (間島) 소낙기운	우뢰 (定州) (定州) (安岳) 번개불	천둥 (定州) (定州) (安岳) 번개불	천둥 (定州) (定州) (安岳) 번개불	천둥 (定州) (定州) (安岳) 번개불	천둥 (定州) (定州) (安岳) 번개불	천둥 (定州) (定州) (安岳) 번개불
落雷	벼락	벼락	벼락 (定州)	벼락 (定州)	벼락 (定州)	벼락 (定州)	벼락 (定州)	벼락 (定州)	벼락 (定州)
氷	얼음	얼음	얼음	얼음 (安岳)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얼음
氷柱	고드름	고드름 (富川)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安岳)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霰	진눈깨비	진눈깨비	진눈깨비 (定州)	진눈깨비 (定州)	진눈깨비 (定州)	진눈깨비 (定州)	진눈깨비 (定州)	진눈깨비 (定州)	진눈깨비 (定州)
霰	외박	외박	외박	외박	외박	외박	외박	외박	외박
旋風	회리바람	회리바람	회리바람 (間島)	회리바람 (間島)	회리바람 (間島)	회리바람 (間島)	회리바람 (間島)	회리바람 (間島)	회리바람 (間島)
嵐	폭풍	폭풍	폭풍	폭풍	폭풍	폭풍	폭풍	폭풍	폭풍
昨日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어제	어제



























# 한글 支社

全南	光州邑	崔奇一
平南	義州邑	朴潤元
平北	七坪市	金成煥
慶北	尙州邑	金永斗
慶南	統營邑	鄭德寶
全北	井州邑	徐廷壽
平北	宣川郡	田蒙秀
慶南	金海邑	盧在甲
平南	鎭南浦	朴苦京
忠南	江景驛前	徐仁錫
平壤府	巡營里	中央書房
咸南	興南 荷德里	李昌連
黃海道	平山郡 古之面	李龍植
黃海道	白川溫泉	宋雲峰
慶南	咸安郡 法寺面	趙載孝
咸南	新興郡 西古川面	李弼鍾
滿洲	圖佳線 東京城	李桓梧
清津府	新岩洞二	卓源

總販賣所

京城府 堅志町 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 送金 注意

一、本誌 代金を 보내실 때에는 그 單數를 반듯이 二十錢、四十錢、七十五錢으로 하여 보내 주시오。 만일 一圓이나 五十錢으로 하여 보내시면, 計算上 不便이 많읍니다。

二、送金하실 때에는 反듯이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라고 밝히 쓰시오, 數字와 住所는 흔려 쓰지 마시오。

三、送金은 反듯이 振替貯金 郵便으로 보내시되, 만일 부득이 郵票로 代送하실 때는 五厘짜리 二錢짜리 三錢짜리 같은 것은 無妨하나, 十錢짜리나 그 이상의것은 보내지 마시오。 收入 印紙 같은것도 보내지 마시오。

四、代금이 다할 때에는 封皮에 『代金盡』이라는 도장을 찍읍니다。 곧 送金하지 아니하시면, 雜誌의 發送을 中止하게 됩니다。

## 社 告

地方에서 한글 支社를 設置하고서 하시느분은 한번 書面으로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朝鮮語學會

## 價 定

一個月	七錢	代金은 反듯이 받음을 要함。
三個月	二十錢	
六個月	四十錢	
一年	七十五錢	

## 料告廣

表紙 表面 二十圓	詳細는 相議를 要함。
全 裏面 十五圓	
普通頁 十圓	

昭和十一年九月廿九日 印刷  
昭和十一年十月一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允宰  
京城府 花洞町 一二九番地

印刷人 金鎮浩  
京城府 堅志町 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 花洞町 一二九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  
振替 京城一〇〇四四番



昭和十九年四月十四日(第三種郵便物認可)  
 日(毎月一日一回發行)

한글 第四卷 第九號

# 現代朝鮮長篇小說全集

第一期 豪華版 全拾卷

## 豫約期限

10	9	8	7	6	5	4	3	2	1
織女星(下)	織女星(上)	三曲線	純情海峽	青年金玉均	牡丹꽃잎말	第二의運命	異次頓의死	故郷(下)	故郷(上)
沈熏	沈熏	張赫宙	咸大勳	金基鎮	廉想涉	李泰俊	李光洙	李箕永	李箕永

### 豫約申請規定

◇卷數・體裁 全十卷、九부인三一段組、各卷四六判五〇〇頁以上六〇〇頁、雅麗한裝幀大豪華版各卷마다作者寫眞略傳筆蹟、自序添付

第一回配本開始 申請順으로 配本합니다

李箕永作

### 故郷(上)

◇配本 今年十月부터每月一回一卷式 但配本順은卷數順에依하지않음

◇申請金 每月一圓五十錢

◇送費 海內十錢海外二十錢

◇申請料 本社로나地方書店으로

振替로送金하시오  
 本社로申請하실境遇에는會費外送料를

內容頁本進呈

(二錢郵票同封請求)

京城府堅志町三十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長光)一四七九〇・三〇七二番 振替(京)七六六〇番

發行所